▶▶ 매일 INDEX

3면
민주 전북도당
총선 선대위 발표

전주매일
www.jjmaeil.com
2020년 3월 17일 화요일 (음 2월 23일) 제2496호
대표전화(063)288-9700

비수술적 척추관절 통증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곽 경 문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전북도 코로나19 추경 전국적 관심

정부 안보다 빨라… 타 지자체 벤치마킹 문의 봇물
정세균 총리 "전북 사례처럼 재원마련 · 신속 추진"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하여 전북도가 마련한 긴급추가경정예산이 전국적인 관심을 끌고 있다.

전북도는 전국 최초로 마련된 도의 코로나19 긴급추경예산안이 13일 도의회에서 신속히 가결됨에 따라 이와 관련한 각 지자체의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고 16일 전했다.

특히 환자가 집중적으로 발생한 대구시와 경상북도를 비롯해 충남, 전남, 광주, 경남, 서울 등이 각별한 관심을 표현했으며 다수의 기초자치단체에서도 예산안 마련 기준과 집행계획에 대한 자료를 요청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도의 코로나19 긴급 추경은 지난 3월 14일 정세균 총리 주재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합동회의'에서도 언급됐다.

이날 회의에서 송하진 지사는 도내 코로나19 대응 상황으로 도 차원의 긴급추경예산에 대해 보고했으며 이에 대해 정 총리는 전라북도의 신속한 준비와 집행의지를 높이 평가하며 "목마를 때 물 한 잔의 가치가 대단히 중요한 것인 만큼 각 시도에서도 전북의 사례처럼 재원을 마련해 신속하게 추경을 추진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도는 코로나19가 확산세에 접어들기 시작한 지난 2월 24일 방역강화와 지역경제 위기극복을 목표로 긴급추경예산안을편성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는 정부안보다도 한발 빠른 대응이었으며 전북도의회의 협조로 신속히 의회를 통과해 집행을 앞두고 있다.

도는 이번에 통과한 긴급 추경예산과 정부예산을 포함해 총 4,300억원의 자금을 예산을 지역경제 활성화에 투입한다.

특히, 전국 최초로 소상공인에게 공공요금과 카드수수료 등 경영유지비로 최대 110만 원을 지급하고 확진자 방문 점포에는 임대료로 최대 600만 원을 지원하는 것을 포함해 착한 임대인 무이자 특례보증과 여행관광숙박업 마케팅 비용 지원, 사회보험료와 휴직수당 지원,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및 활성화 등 차별화된 정책과 과감한 집행으로 코로나19 파급영향 최소화와 조기 극복에 노력한다는 계획이다.

/김진성 기자

'착한 사랑의 헌혈운동' 전주시 보건소는 코로나19로 인해 헌혈자가 급감하고 있는 가운데 헌혈 확산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대한적십자 전북혈액원과 함께 16일 전주시 직원과 시민을 대상으로 착한 사랑의 헌혈운동을 실시했다. 〈관련기사 4면〉

"전북체육 발전 위해 합심할 것"

강광 전북 시 · 군 초대 체육회협의회장 추대

"전북체육 발전을 위해 합심하겠습니다"

강광 정읍시체육회장이 전북시·군 초대 체육회협의회장으로 추대됐다.

강 회장은 정읍·전주경찰서장, 민선4기 정읍시장 등을 역임하면서 체육공원과 게이트볼장, 축구장 조성 등 체육발전에 크게 기여했다.

특히 강 회장은 정읍을 넘어 전북을 전국에서 가장 월등하고 뛰어난 체육 강도로 거듭날 수 있도록 도내 시군체육회장과 긴밀한 협업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강 회장은 '시군체육회장 정책 간담회'에서도 도민 건강 증진과 전북체육 발전을 위한 화합과 단결을 줄곧 강조했다.

강 회장은 "민선 체육회장 시대를 맞아 도내 14개 시군체육회는 더욱 힘을 모아야 한다"며 "특히 정강선 전북체육회장이 추진하는 모든 사업에 적극 참여하고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강 회장은"체육회의 결속력을 다지고 각 시군의 체육 현안을 알기 위해 매월 시군별로 돌아가며 월례회의를 가지자"며 "각 시군의 실정을 잘 알고 힘을 모아야 정부 공모사업 등에 적극 대처할 수 있고, 체육시설을 확충해 전국대회 및 전지훈련을 골고루 유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강 회장은 현재 핸드볼실업팀 창단과 체육시설 확충, 전국대회 유치 등도 적극 추진하고 있다.

강 회장은 "실업팀 창단을 위해 정읍시와 계속 논의중이며 내장산 입구에 있는 문화광장에 국제적 규모의 축구장을 조성하려고 한다"며 "체육시설이 조성되면 축구를 비롯해 리틀야구 등도 진행할 수 있어 전지훈련지로 활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강 회장은 "전국 6570친선족구연합회 총재직을 맡고 있는 데 족구대회 등 전국대회를 정읍에 유치하려고 한다"며 "체육활동이 이뤄지면 지역경제에도 큰 보탬이 될 것이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강 회장은 "체육과 관련 경험과 경륜이 있는 만큼 이를 적극 활용하겠다"며 "정읍을 건강한 도시로 만들고 전북의 밝은 미래를 위해 체육인재도 적극 육성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강광 회장은 정읍시장 재임시절 체육진흥에 창의적이고 헌신노력한 공을 인정받아 전국자치단체장으로는 전국 최초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주관하는 제47회 대한민국체육상 진흥상 부문에 수상되기도 했다. /장은성 기자

신천지 조사 응답 99.9%, 유증상 100% 검사 완료

전북도, 623명 중 양성 1명 · 음성 621명 · 검사 중 1명

전북도는 15일 현재 도내 신천지 신도 1만3250명을 조사해 623명의 유증상자를 확인했고, 이들을 검사한 결과 양성 1명, 음성 621명으로 판정됐으며 1명은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도는 지난 12일 정부로부터 제공받은 신천지 교육생 64명을 추가하고, 중복명단 정리와 실거주지 타 시도 이관 등을 통해 총 1만3250명을 전수조사하고 모니터링 중에 있다.

지난 15일까지 조사한 결과, 유증상자는 623명으로 이 중 양성은 1명(3.1일 확진), 음성은 621명, 남은 1명은 검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이날까지 연락이 안된 인원은 8명으로 경찰에서도 소재 파악이 어려운 명단으로 확인돼 중앙방역대책본부로 이관을 협의 중이다.

도는 또 신천지 신도 중 요양시설, 의료인, 복지시설, 유치원 등 고위험직업군 279명에 대해 특별관리를 추진 중에 있다.

지난 10일 정부에서 1차로 넘겨받은 요양시설(병원)과 간병인 104명의 명단과 지난 13일 2차로 받은 의료인·복지시설·유치원·어린이집 175명의 명단을 받아 진단검사를 진행 중이다.

15일까지 진단된 결과로는 189명이 음성판정을 받았고, 13명이 검사 중이며, 11명은 검사 예정이다. 나머지 66명의 경우 이미 퇴사했거나 주소불명 등 추가 확인이 필요한 상황이다.

도 관계자는 "도내 신천지 신도에 대한 코로나19 전수조사가 마무리되는 가운데 유증상 답변자에 대한 검사도 100% 실시하여 1명만 검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으로 지난 1일 이후 추가 확진자는 없다"며 "고위험직종에 종사하는 신도분들에 대해서는 특별관리를 추진 중이며, 무증상자에 대한 2주간의 능동감시는 순차적으로 종료될 예정으로 신천지 신도분들의 많은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진성 기자

전북도, 남원서 신천지 종교시설 1곳 추가 확인

전북도가 남원에 있는 신천지 종교시설 1곳을 추가 확인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에 확인된 시설은 중앙방역대책본부(중대본)에서 추가 제공한 신천지 부속시설로, 담당공무원의 현장점검을 통해 신천지 시설임을 확인하고 16일 강제폐쇄 및 집회금지 행정명령을 내렸다. 이로써 도내 신천지 종교시설은 92곳으로 늘었다.

앞선 지난달 26일, 전북도는 코로나19의 지역사회 전파를 막기 위해오는 10일까지 14일간 도내 신천지 시설 66개소에 대한 시설폐쇄와 집회금지 처분을 발동했으며, 28일 6곳(도민 제보), 지난 2일 2곳(도민 제보), 5일 14곳(정부 자료 13, 도민 제보 1), 11일 1곳(신천지 교인 자진 신고), 13일 2곳(도민 제보), 16일 1곳(정부 자료 1) 등 모두 92곳을 시설폐쇄하고 긴급방역을 실시했다.

도 관계자는 "이들 시설에 대해 시군과 함께 매일 현장점검을 실시해 집회금지 등을 확인하고 있다"며 "지속적으로 신천지 추가 시설을 파악해 감염경로를 차단하는데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진성 기자